

한글의 제자 원리

(1) 초성

- ① 상형의 원리 : 초성은 ‘ㄱ, ㄴ, ㄷ, ㄴ, ㅇ’의 다섯 글자가 기본 글자인데, 이들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初聲凡十七字。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ㄴ象舌附上齶之形。脣音ㄷ象口形。齒音ㄴ象齒形。喉音ㅇ象喉形

어금니소리인 ‘ㄱ’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혓소리인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고, 입술소리인 ‘ㄷ’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잇소리인 ‘ㄴ’은 이의 모양을 본떴으며, 목구멍소리인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 ② 가획의 원리 : 초성 기본 글자 다섯에 획을 더하여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을 만들었다. 가획자는 조음 위치는 같지만 기본자에 비하여 그 소리가 조금씩 세게 나게 만들어져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다.(초성 중에서 가획의 원리에 나타나지 않은 ‘ㅇ, ㆁ, ㆁ’ 세 글자는 이체자(異體字)이다.)

ㄱ而ㄱ 比聲出稍厲，故加劃。ㄴ而ㄴ ㄴ而ㄴ ㄴ而ㄴ ㄴ而ㄴ ㄴ而ㄴ ㄴ而ㄴ ㄴ而ㄴ ㄴ而ㄴ ㄴ而ㄴ 其因聲加劃之義皆同 而唯ㅇ爲異。

ㄱ은 ㄱ보다 소리가 좀 세게 나는 까닭에 획을 더하였고, ㆁ에서 ㆁ, ㆁ에서 ㆁ, ㆁ에서 ㆁ, ㆁ에서 ㆁ, ㆁ에서 ㆁ, ㆁ에서 ㆁ, ㆁ에서 ㆁ, ㆁ에서 ㆁ이 된 것도 그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한 뜻이 다 같다. 그러나 ㅇ은 다르게 하였다.

③ 병서의 원리

- 각자병서 : 초성 ‘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등을 가로로 써서 ‘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을 만드는 것
- 합용병서 : 필요한 경우에는 ‘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등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써서 만드는 것

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

초성을 합쳐서 사용하려면 나란히 쓰라. 종성도 마찬가지이다.

- ④ 연서의 원리 : ‘ㄱ, ㆁ, ㆁ’과 ‘ㅇ’을 세로로 이어 써서 ‘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을 만들었다.

-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
- 을 순음의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2) 중성

- ① 중성은 ‘·, 一, 丨’ 세 글자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각각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삼재(三才)를 상형하였다.

中聲凡十一字。·(……)形之圓 象乎天也。一(……)象之平 象乎地也。丨(……)形之立 象乎人也。

중성은 모두 11자인데, ‘·’은 …… 그 형상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뜻 것이요, ‘一’는 …… 그 형상이 평평한 것을 땅을 본뜻 것이요, ‘丨’는 …… 그 형상이 선 모양인 것은 사람을 본뜻 것이다.

② 합성자(合成字)

- 초출자 : (·)+(一)→ㄱ, 丁 (·)+(丨)→ㅊ, ㄱ
- 재출자 : (·)+(ㄱ, 丁)→ㅊ, ㅅ (·)+(ㅊ, ㄱ)→ㅊ, ㅊ

- ③ 합용자(合用字) : 중성의 기본 글자 세 자를 서로 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자를 다시 결합하여 만든 글자. 나, 거, 니, ㅈ, ㅊ, ㅊ, ㅊ, ㅊ, ㅊ, ㅊ

(3) 종성

우리말의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초성과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었지만 종성 글자 받침은 초성과 같은 자음에 속하기 때문에 초성 글자를 그대로 썼다. (終聲復用初聲)

- (4) 한글은 같은 발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을 비슷한 모양의 문자로 체계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게 되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탁월한 문자가 되었다.

(5) 정보화 시대의 한글

로마자나 한글은 음운 문자로서 적은 수의 글자로 거의 무한대의 표현이 가능하고,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 전화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로워 정보 처리 및 전달 속도가 빠르다.